

국립농산물검사소 충북지소 존지에 관한 건의 (안)

존경하는 국회의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께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더욱이 농촌의 소득증대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충북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농촌은 WTO체제와 IMF관리 체제하에서 환율 및 유류값 인상으로 인한 각종 농자재, 농약, 사료값 인상으로 인하여 영농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농업에 전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에서는 전국 제일의 고품질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인과 함께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업관련 조직 개편은 농업인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하여 가칭 「농업 정보품질관리원」으로 하고 충북농산물검사소를 충남으로 통합을 하고 충북의 8개 농산물검사소출장소(청주,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보은, 옥천, 영동)를 6개 출장소(청주, 충주, 제천, 음성, 괴산, 옥천)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충북농산물검사소 업무 중 농산물품질인증제, 농산물규격출하지도, 농산물원산지표시관리업무, 농산물안전성 조사 등과 특히 전국 면적의 23%를 차지하는 인삼경작지정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는 물론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를 충남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부 중앙행정기관인 세무, 수자원, 도로, 환경, 체신, 통계 등 중앙특별기관이 충남에 편중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충북 도민들의 소외감은 더욱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등 각종 민원을 도계가 다른 충청남도 대전까지 먼길을 가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님

국립농산물검사소 충북지소 폐지계획은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고품질 청정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농업도인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계획이며, 대농업인 서비스 약화 및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 입니다.

효율적인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뜻은 이해가 되지만, 농업인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의 충남과의 통합계획은 철회 되어야 함을 15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건의 내용이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4. 28.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